

## 김병문 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성립사를 통해 본 근대의 언어사상사』

박종후 (朴 鐘 厚) \* · 김은애 (金 恩 愛) \*\*

### 0.

한국어 작문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제출한 숙제를 펼친다. 한손에 빨간색 볼펜을 들고 연신 눈을 깜박이며 학생들의 한국어 작문을 고쳐 나간다. 다들 한국어로 말은 곧잘 하는데 쓰기가 영 시원치 않다. 철자법도 많이 틀린다. 특히 띄어쓰기까지 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나의 빨간 펜은 정신없이 춤추게 된다. “선생님, 한국어 쓰기는 너무 어려워요!”

가나문자에만 한정해 이야기하자면, 문자 표기와 발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어의 모어 화자에게 한국어의 철자법, 즉 한글 맞춤법은 많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실,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한글 맞춤법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다.

### 1.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모두 나름의 철자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역시 한국어를 표

기하는 규칙, 즉 철자법이 있는데 이를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글 전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공식 문서에는 원칙상 한글로만 글을 쓰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한글 맞춤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sup>1</sup>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토대로 그동안 여러 번 개정돼 왔는데, 그 내용은 언어학적 원리와 규칙에 따라 수많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길고 복잡하다.

많은 나라에서는 대체로 오랜 기간 형성된 역사적 관습을 존중하여 철자법을 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한글 맞춤법”은 근대 언어학 이론의 원리 원칙에 맞춰 정교하게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 전통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국가기관에서 위촉한 언어학자들이 모여 기존의 철자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것을 수정하며 이를 다시 국가기관의 고시를 통해 민간에서 시행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자들의 의도와 사상이 강하게 반영

\* 獨協大学国際教養学部・特任准教授

\*\* 福岡県立大学人間社会学部・准教授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한글 맞춤법이 이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데에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후발 주자로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회적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한글 맞춤법은 언어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척 어렵게 여겨지기도 한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1933년 ‘통일안’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2017년 고시, 제1장 총칙의 제1항)라는 대원칙 때문이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려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왜 또 거기에 어법에 맞게 쓰라는 말까지 덧붙였을까? 어찌 보면 형용모순처럼 들리는, 이와 같은 음성 중심주의와 형태 중심주의 사이의 줄다리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은 모아 화자들까지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소리대로’는 음성 중심의 표음적 표기이고 ‘어법에 맞도록’은 형식 중심의 형태적 표기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충돌한다. 소리대로 적는다면 ‘꼬치’ ‘꼰만’ ‘꼰파’가 돼야 하지만,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면 ‘꽃이’ ‘꽃만’ ‘꽃과’가 돼야 한다. 또 ‘먹는’은 소리 나는 대로 ‘멍는’이라고 쓰지 않고 원래 형태를 밝혀 쓰면서 왜 ‘더위’는 ‘덥어’로 쓰지 않고 소리 그대로 표기할까? 그 배후에 있는 형태음운론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글 맞춤법은 근대 언어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의도치 않게 일반인들이 한글 맞춤법을 복잡하고 어렵게 여기게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이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는 식민지 조선의 당대 지식인들의 치열한 사상 투쟁이 반영돼 있다. 저자<sup>2</sup>는 이 과정을 분석하면서 언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 근대의 사상사 복원을

시도한다.

## 2.

앞서 언급한 대로 한글 맞춤법은 그동안 여러 번 개정돼 오기는 했지만(현행 한글 맞춤법은 1988년에 개정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 시초는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다시피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 국권을 빼앗기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상태다. 점점 식민지 시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제도를 통해 한반도 내 일본어 사용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사용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철자법을 만들고자 분투한 학자들이 민족과 국가와 국어에 대한 고민을 거기에 담지 않았을 리가 없다.

현재는 ‘한글’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는 하는데 사실 세종이 창제한 문자의 이름은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기 바란다. 즉, ‘한글’이라는 이름 역시 추후에 인위적으로 발명된 것이다. 누가 그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sup>3</sup> 1910년 이전에는 그 이름이 쓰이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한글’의 ‘한’에는 ‘크다’는 ‘韓’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말년에 주시경이 입교한 대종교에서는 이 ‘한’을 ‘한-桓-韓’으로 파악하며 단군 신화와 연결시킨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에서 ‘한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 자체가 당대 주시경을 비롯한 학자들이 민족성을 강하게 의식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닐까.

### 3.

『<한글 맞춤법 통일안> 성립사를 통해 본 근대의 언어사상사』는 저자가 그동안 여러 학술지에 써 온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를 위해 쉽게 풀어 쓴 책이다. 모두 10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90년대 근대계몽기의 국문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간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며 한국어와 그 표기법을 둘러싼 한국의 ‘언어적 근대’의 형성 과정을 고고학적으로 탐구한다.

수시로 친구들과 SNS로 소통하는 현대의 우리에게 문자 생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터이다. 하지만 불과 수 세기 전까지만 해도 문자 생활이란 사회 기득권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였다. 유럽에서는 왕과 귀족, 수도사들만이 고전 라틴 문어로 문자 생활을 했고, 동아시아 역시 기득권층이 고전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했다.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서의 고전 문어와 세속적 민족어 사이의 괴리, 이러한 다이글로시아(diglossia)의 상태에서 한 국가의 공식 언어인 ‘국어(national language)’의 성립은 민중의 말을 문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근대는 민족을 단위로 한 국민 국가가 전 세계를 뒤덮어가는 시기였는데, 이를 언어적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각국의 세속적 민족어들이 자기만의 표기법을 갖추며 표준화되어 ‘국어’의 지위에 오르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근세 이후 유럽에서 근대 문어의 성립은 중세 봉건제와 교황권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언어와 민족, 그리고 국가의 삼위일

체를 통해 형성된 근대 국민 국가는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토대가 되고 그렇게 발전한 국가들은 제국주의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 본 후발 국가들 역시 국민 국가 형성에 ‘국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 책에 따르면 1890년대 조선의 계몽사상가들은 한글 사용 문제가 단순히 문자 체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정치 체제 등을 사회 전분야의 근대화와 연결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문’과 ‘국어’가 전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논의는 근대화, 자주 독립, 민족 정체성 등과 관련하여 ‘왜 국문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표기법의 통일과 관련한 ‘어떻게 국문을 써야 하는가’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불행하게도 조선의 경우 근대 국민 국가와 국어의 형성 전에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이후의 논의는 민족성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된다. 그런 점에서 1910년 경술국치 후인 1913년 정도부터 ‘한글’이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독립 후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라도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국어’의 발명은 꼭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표기에 적합하지 않은 한자와 한문에서 벗어나 조선 민족의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보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철자법이 확정될 필요가 있었다.

한문이라는 고전 문어에서 벗어나 민중의 언어와 일치하는 문어를 만들어 내는 일, 이는 기존의 고전 한문을 통한 문자 생활을, 민중의 세속적 한국어 표기에 적합한 한글을 통한 문자 생활로 바꾸어 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동안 한글을 어떻게 이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없이 각자 알아서 써 왔기 때문에 근대적 언어의 구성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했던 것이고 (여전히 국가 기관에서 심의하고 확정해서 고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어떻게 국문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통일안’으로 정립돼 가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과 학자들 사이의 논란을 상세하게 살피는데, 이를 통해 당대 지식인들이 국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 어떤 논리와 역학 속에서 결정된 것인지 드러난다.

#### 4.

저자는 ‘국어’,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 근대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뤄진 언어 규범화의 산물, 즉 근대의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진 것처럼 언어의 근대화, 즉 규범화 과정 역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소수언어(또는 방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책에서 이루어낸 것과 같은 고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어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 근대와 함께 근대를 넘어서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6년 이연숙 선생의 『「国語」という思想——近代日本の言語認識』(岩波書店)이 출판된 이후 언어적 근대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근대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언어적

근대에 논의는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조금 낮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언어적 근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1 조선어학회는 최현배, 장지영, 이윤재 등 당대 한국의 국어학자 및 지식인들이 한국어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학술 단체인데, 처음에는 ‘조선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한글학회’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 2 김병문(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부교수)
- 3 주시경이라는 설이 주류이지만 최남선이라는 설도 있다.

[書評の日本語訳]

## キム・ビョンムン 著『「ハングル正書法統一案」成立の歴史を通して見た近代の言語思想史』

0.

韓国語の作文の授業を終え、学生たちが提出した宿題を広げる。片手に赤ペンを持ち、しきりに瞬きをしながら学生たちの韓国語を直していく。総じて韓国語で話すのは上手だが、書くとなるといまひとつである。特に分かち書きにまで細かく注目していくと、私の赤ペンは慌ただしく踊るようになる。——「先生、韓国語の正書法は難しすぎます！」

表記と発音が概ね一致する仮名文字に慣れ親しんだ日本語母語話者にとって韓国語の綴り方、すなわち「ハングル正書法」は非常に難しいものかもしれない。いや、韓国語母語話者にとってさえもそれは決して簡単なものではない。

1.

文字を持つ言語にはすべて、それを表記するための決まり、すなわち綴字法がある。韓国語にもやはり綴字法が存在し、それを「ハングル正書法」という。現在、韓国では「ハングル専用政策」を採っており、公式文書を作成する場合、原則として、ハングルのみを使用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そして、その際には、この「ハングル正書法」に則って書かねばならない。

ハングル正書法は、1933年の朝鮮語学会<sup>注1)</sup>

による「ハングル正書法統一案」を基に、これまで何度も改正されてきたが、その内容は言語学的原理と規則に沿って、多くの条項から構成されているため、長大にして複雑である。多くの国々では、概して長い間形成された歴史的慣習を尊重して綴字法を定めているが、韓国の「ハングル正書法」は、近代言語学理論の原理・原則に合わせて、精巧に作り出されたものである。こうした伝統により、韓国ではこれまで国家機関から委嘱された言語学者たちが集まって、既存の綴字法について議論して修正し、さらにそれを再び国家機関が告示、施行するということを繰り返してきた。綴字法が人為的に作られ、その後も継続的に修正を重ねていくということは、そこに与した者たちの意図や思想が色濃く反映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

実はハングル正書法がかく人為的に作られたのには、近代国民国家形成の「後発走者」として、やむを得ないさまざまな歴史的・社会的要因がある。しかしそれゆえ、ハングル正書法は言語学的知識を有さない人々には非常に難しく感じられたりもする。

その最も大きな理由の一つは、1933年の「ハングル正書法統一案」以降、現在までそのまま維持されている「発音通りに記すが、語法に合うように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2017年告示、第1章総則の第1項)という大原則である。「発音通りに記す」というのは、ハングルが表音文

字である以上、当然のこのようにも思われるが、なぜまたそこに「語法に合うようにする」という文言まで付け加えたのだろうか。ある意味、形容矛盾のように聞こえる、このような音声中心主義と形態中心主義の間の葛藤が原因となり、ハングル正書法は母語話者までも困惑させるのである。

「発音通り」は音声中心の表音的表記であり、「語法に合うように」は形式中心の形態的表記であるため、両者は互いに衝突する。発音通りに書くなら「꽃이」(花が)、「꽃만」(花だけ)、「꽃과」(花と)とせねばならないが、語法に合うように書くなら「꽃이」(花が)、「꽃만」(花だけ)、「꽃과」(花と)とせねばならない。また、「먹는」(食べる)は発音通りに「멍는」と書かず、本来の形をそのまま使うのに、なぜ「더워」(暑い)は「덥어」ではなく、発音通りに表記するのか。その背後に伏流する形態音韻論的原理を知らない者は疑問を抱かざるを得ない。

ハングル正書法は、近代言語学理論に基づいているが、これは図らずも一般人にハングル正書法を複雑で難しく思わせる帰結を齎してしまった。しかし、この「発音通り」と「語法に合うように」という2つの基準を定めるプロセスには、植民地朝鮮の知識人たちの激しい思想闘争が反映されている。著者<sup>註2)</sup>はその過程を分析し、言語を中心とした韓国における近代の思想史の復元を試みている。

## 2.

前述の通り、ハングル正書法はこれまで何度か改正されてきたが(現行のハングル正書法は1988年に改正されたものをベースにしている)、その始原は1933年の朝鮮語学会による「ハ

ングル正書法統一案」にさかのぼる。周知の如く、当時は日本による植民地化で国権を奪われ、20年余りの歳月が過ぎた時期であった。そして、植民地支配が長期化することで、さまざまな制度を通じて朝鮮半島内の日本語使用が拡張し、社会的地位を得るために多くの韓国人が日本語を用いていた時代でもあった。このような時期に韓国語を表記するための綴字法を作ろうと奮闘した学者たちが、民族と国家、そして国語に対する苦悩を、そこに盛り込まなかったはずがない。

現在は「ハングル」という呼称があまりにも一般化し、その来歴を日常的に意識す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だろうが、世宗がハングルを創制した当初の文字の名前は「訓民正音」だったことを思い出してほしい。すなわち、「ハングル」という呼び名もやはり、後に人為的に発明されたのである。誰がその名前を付けたのかについては諸説あるが<sup>註3)</sup>、1910年以前にはその名前が使われていなかったことだけは確かである。「ハングル」の「ハン」には「大きい」という意味と「韓」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というが、晩年に周時經<sup>チュシギョン</sup>が入教した大倣教では、この「ハン」を「ハン=桓=韓」と見做し、いわゆる檀君神話と結びつけている。それならば、訓民正音を「ハングル」と名前を変えて呼ぶこと自体が、当時の周時經<sup>チュシギョン</sup>をはじめとする学者たちが民族性を強く意識し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

## 3.

『〈ハングル正書法統一案〉成立史を通じて見た近代の言語思想史』は、著者がこれまでさまざまな学会誌に書いてきた論文の内容を一般読

者のためにわかりやすく簡潔に解説した本である。全10章から構成されているが、1890年代の近代啓蒙期の国文に関する議論から1933年の朝鮮語学会の「ハングル正書法統一案」の制定に至るまで、40年余りの間の過程を立体的に再構成し、韓国語とその表記法をめぐる韓国の「言語的近代」の形成過程を考古学的に探求している。頻りに友人たちとSNS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現代の我々にとって、今や文字がない生活など想像すらできないだろう。しかし、わずか数世紀前まで文字生活というのは、社会的な既得権階層のみが享受できる特権の一つだった。ヨーロッパでは王と貴族、修道士のみがラテン語で文字生活をし、東アジアでも既得権層のみが漢字で文字生活を営んでいた。リンガ・フランカ(lingua franca)としての古典文語と世俗的な民族語の乖離という、ダイグロシア(diglossia)の状態の中で、一つの国家の公式言語である「国語(national language)」の成立は、民衆の言葉を文字でいかに表記するかについての議論から始まった。近代は民族を単位とした国民国家が全世界を覆っていく時期であったが、これを言語的側面から照射すれば、これまで注目されていなかった各国の世俗的な民族語が自分たちだけの表記法を備え、標準化され、「国語」の地位を獲得する過程だったのである。

とりわけ、近世以降のヨーロッパにおける近代国語の成立は、中世封建制と教皇権の支配から脱し、民族に基盤を置いた中央集権国家の形成と軌を一にする。言語と民族、そして国家の三位一体を通じて形成された近代国民国家はその後、産業化と近代化を通じた富国強兵の土台となり、そのようにして発展した国家は帝国主義への道を突き進むことになる。こうした過程に注目した他の国々もやはり、国民国家形成に

おける「国語」の重要性に気づき、それを作り出そうとしたのだった。

本書によれば、1890年代、朝鮮の啓蒙思想家たちはハングル使用問題が単に文字体系の変化のみを意味するのではなく、生活習慣や政治体制など、社会のありとあらゆる分野の近代化と結びついていることを認識していたという。そのため「国文」と「国語」が全社会的な議論の対象になったのである。結果的にその議論は近代化、自主独立、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などと関連して「なぜ国文を使うべきか」、そして表記法の統一に関連した「どのように国文を記すべきか」の二方向へと展開されたが、不幸にも朝鮮の場合、近代国民国家と国語の形成前に日本に国権を奪われてしまう。

それゆえ、朝鮮における言語をめぐる議論は、必然的にある種の民族性をより強く帯びることになる。そのような点からしても、日韓併合(1910年)後の1913年頃から「ハングル」という呼称が使われ始めたということには深い意味がある。日本からの独立を果たし、独立後の富国強兵のためにも植民地朝鮮の知識人にとって「国語」の発明は不可欠であっただろう。そのためには韓国語の表記に適合しない漢字漢文の世界から脱却し、朝鮮民族の「偉大なる」文字であるハングルを普及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が、そのためにはどうしても綴字法を確定する必要があった。

漢文という古典文語から脱し、民衆の言語と一致する書き言葉を創出すること。それは既存の古典漢文を通じた文字生活を、民衆の言語＝韓国語の表記に適したハングルによるものへと変えることでもある。しかしながら、それまでハングルをどのように利用して韓国語を表記すべきかについてはあまり議論がなく、おのおの

が自己流で書いてきたような側面があったため、近代的言語の構築はそこ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ず、依然として国家機関で審議し確定して告示するということは、ある意味、それは現在においても未完の課題だとも言えよう。著者はこのように、「どのように国文を書くべきか」についての議論が、「統一案」として確立されていく過程で、主要争点と学者の間の論難を詳細に調べている。これを通じて、当時の知識人たちが「国語」をどのように見ていたのか、そしてハングル正書法がいかなる論理と力学の中で決定されていったのかを鮮明に描いている。

#### 4.

著者は「国語」、そして「ハングル正書法」が、近代の国民国家形成の過程でなされた言語規範化の産物、すなわち近代の発明品であるという事実を再確認させてくれる。そして、国民国家形成の過程で少数者に対する排除と差別がなされたように、言語の近代化、すなわち規範化の過程にも同様に、少数言語や方言に対する排除と差別がその根底に流れていたことを看過してはなるまい。

この事実にとどり着くためには、やはり本書において企図されたアプローチのような、考古学的探求が必要となってくる。これを通じて韓国語への新たな想像力を働かせ、近代とともに近代を乗り越えるための「知恵」を得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日本では1996年、イ・ヨンスク氏の『「国語」という思想：近代日本の言語認識』（岩波書店）が出版されて以来、言語的近代に関する活発な議論が行われてきた。その影響を受けて韓国においてもさまざまな分野で韓国の近代とは何か

を問う研究や議論が展開されてきたが、未だ言語的近代については、断片的な議論にとどまっているように思料される。やや遅れを取っている感は否めないが、本書を通じてさらなる研究と議論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する。

#### 注

- 1 朝鮮語学会は、<sup>チェヒョンベ</sup>崔鉉培、<sup>チャンジヨン</sup>張志暎、<sup>イ ユンジ</sup>李允宰等、当時の韓国の国語学者および知識人が韓国語を研究するために作った学術団体だが、最初は「朝鮮語研究会」という名前で活動した。1931年に「朝鮮語学会」へと名前を変え、1933年に「ハングル正書法統一案」を発表した。現在は「ハングル学会」という名称に変わり続けている。
- 2 キム・ビョンムン（延世大学校近代韓国語学研究所副教授）
- 3 <sup>チュンギョソ</sup>周時經だという説が主流であるが、<sup>チュナムソン</sup>崔南善だという説もある。